

민주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공천 배제...수도권 혐지 출마 요청 황운하 불출마 '대전 중구' 2인 경선...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안구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전략공천위는 수도권 혐지 출마 필요성을 거론하며 최근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과 맞물려 임 전 실장이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지난 16·17대 국회 당시 중·성동갑에서 내리 당선됐다.

안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다른 지역까지 의결되면 (공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위는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대전 중구의 경우 박용강 전 대전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 병원 상임감사의 2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

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공천이)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신들을 종식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단일대오를 이뤄서 승리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로 저는 저를 이만큼의 정치인으로 키워준 서울 광진을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광진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비판하며 전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저를 이만큼의 정치인으로 키워준 서울 광진을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광진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비판하며 전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野 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유력

민주당·시민사회 추천 인사 공동대표...다음달 3일까지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당명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박홍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전날 사용할 수 있는 당명이라

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몇 개의 안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이름으로 질의를 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협상을 통해 오늘날 중으로 공식적으로 당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연합이 반

씩 주도하는 성격을 고려해 민주당 추천 인사 1명과 시민사회 추천 인사 1명을 공동대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일 중으로 컨셉을 정하고 최적의 인사를 섭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개혁진보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후보를 공모한다.

심사는 36명으로 구성된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국민심사단(100명), 온라인 시민심사참여단 등이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10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박은식 "창고형 복합쇼핑몰 동구 유치"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저를 키워준 대한민국, 그리고 제 고향 광주에 보답하고 싶다"면서 4·10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사랑하는 고향이 진보좌파에게는 이용만 당하고, 보수우파에는 버려지는 것이 너무 싫고 자존심이 상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면서 출마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정치적 대안 세력이 존재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중앙에서 인정받은 정치인 중에 광주로 내려오는 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광주에 기업을 더 이상 오지 않아 재정 자립



도는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하고,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민주당이 광주 권력을 독점하는 동안 일어났는데 과연 민주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충장로 지점 출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스크린 경마장 이전 ▲창고형 복합쇼핑몰 동구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광주 문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소화가과과 전임의를 지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인재영입위원을 함께 맡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정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예산 확보 앞장"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정현 예비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이뤘다"며 4·10 총선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이 수십년 기록권을 유지하면서 광주와 호남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선출직 광역·기초 의원 중 보수정당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광주는 경쟁이 없어 지역 발전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시절 국립 광주 청소년 재활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229억원을 유치했고, 전남대 새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를 포



함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다"며 "보수의 힘지 호남에서 예산 확보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5대 공약도 제시했다. ▲광산구 내 국제·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한 108홀 파크골프장 ▲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시니어 무료 급식소 확대 지원 ▲마을별 주차 민원 해소 ▲토지거래 규제 완화 입법 추진 등이다.

김 후보는 광주 출생으로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힘, 광주서 첫 총선 필승 결의대회

다음달 2일 DJ센터...광주 8개 선거구 중 6곳 후보 확정

국민의힘이 총선 필승 결의대회 첫 일정으로 호남을 택했다. 불모지 공약을 본격화하면서 호남 구애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주·전남 시·도당 등은 오는 3월2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광주전남 국민 희망의 길'을 개최한다.

결의대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후보자 등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를 첫번째 행선지로 선택했다. 이날 오전에 광주·전남을 방문하고 오후에 전북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제주·부산 등을 지나 충

청, 강원, 수도권 등을 돌며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광주 등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 후보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6곳의 총선 후보를 확정하고 공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동남갑은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건축사회장, 동남을은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서구갑은 하현식 전 광주 서구를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나선다. 북구을은 광주MBC 아나운서로 활동한 양종아 한뼘백래식기획 대표가 인재 영입대 우선 추천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광산갑은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 광산을은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사장의 공천이 확정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아동 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기금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진화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